

跳躍엔 도덕성회복이 앞서야 한다

세상 만사엔 때가 있다. 때를 잘 맞
이하면 융성하고 때를 잘못 맞이하면
쇠퇴하기 마련이다. 때는, 사람은 물
론 국가의 경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나라의 국운은 때를 어떻
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가오는 제3의 물결

국운은 특히 격변기일수록 중요한
뜻을 갖는다. 요즘 우리는 엄청난 격
변기를 맞고 있다.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
했다. 국가 이익 앞에 이데올로기는
물론 국제간의 협약도 하루 아침에 파
기될 수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정보화사회란 거대한 물결이
몰아치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물결을 가리켜 흔히 '제3의 물
결'이라 한다. 제3의 물결-정보화사회
는 과거 어떤 변혁기보다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1970년 「미래의 충격」과 1980년 「제
3의 물결」이란 책을 내놓아 세계에 큰
파문을 던졌던 미래학자 앨빈 · 토플러
는 '제1의 물결'을 지금으로부터 1만
년전쯤 한 굉장한 천재가 곡식에서 싹
이 돋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
고 농사일을 시작한 데서 찾고 있다.
이 물결은 1년에 1km정도의 아주 느
린 속도로 천천히 주위로 번져가 9천
년쯤 걸려 전지구로 파급되었다.

'제2의 물결'은 3백년전쯤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발명과 공업화로 일기 시
작했다. 제2의 물결-공업화의 가장 두
드러진 특징은 대량화(massification)
였다.

공장은 똑같은 물건을 통일된 규격
으로 대량생산했다. 그러기 위해서 제
품이 규격화됐다. 생산제품뿐 아니라
신문과 방송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
였다. 신문과 방송은 같은 내용의 보
도를 동시에 수많은 사람에게 공급하
고 있다. 교육은 전국의 학생이 똑같
은 나이에 똑같은 내용의 것을 집단으
로 실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로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고 집안이 핵가족으로
분화됐다. 농촌은 인구가 줄고 노인과
여성의 위치가 크게 달라졌다. 생활양
식은 물론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라인에서 일체화 작업
을 해야하므로 시간을 지키는 일이 강
조되고 천시받던 상인과 기술인이 사
회의 주역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격
변의 제2의 물결-산업혁명기에 개인은
물론 국가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고
하는 것이다. 제2의 물결은 서양이 동
양을 제패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초
래했다. 1백년전 일본은 같은 동양권
에 있으면서 이 물결을 잘 소화함으로
써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 물결을 잘 타지 못해 36년
간 일본에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

우리는
도덕성 회복을 통해서
정보화사회의 격변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될때
「제3의 물결」이라는
거센 파고를 넘어
선진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李 光 榮
(한국일보 부국장/본지 편집위원)

어야 했다.

탈대량·탈규격시대로

정보사회는 대량·집단·획일화에서 벗어나 탈대량·탈집단·탈규격을 지향한다. 그래서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조직이 잘 적응해 간다. 관료적인 대기업 조직은 불리하다. 거대한 공장을 가진 사람보다 창의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기업과 직장, 가정의 형태도 다양화된다. 정보사회는 다기다양 천태만상의 일들을 컴퓨터와 통신이 능률적으로 해결해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3의 물결-정보사회의 도래가 꿈같은 사회를 낳는다는 환상에 젖기 쉽다. 그러나 이보다 정보사회의 도래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중진국은 없고 선진국과 후진국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전망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정보사회를 슬기롭게 맞기 위해 국력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2천년대 선진공업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무척 비관적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제2의 물결의 파고를 헤치고 중진국 상위권 돌입에 성공했다. 그런데 제3의 물결-정보사회란 높은 파고가 숨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정보사회를 맞이함에 있어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보사회라 하면 흔히 컴퓨터와 통신기술 그리고 정보통신망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을 보기 쉽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정보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만들어 내는 신용사회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낸 컴퓨터와 통신기술에 사람의 마음바탕인 도덕성에 뿌리를 둔 신용이 결합해서 정보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창조성·정직성이 중요

정보사회에서는 생산성에서 자본이나 자원보다 사람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여기에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있다. 교육받은 유능한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적자원의 질이다.

정보사회에 필요한 인력은 손재주(技能)만으로 되지 않는다. 창조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력이 필요하다. 정보사회를 꽃피우려면 신용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아무리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믿음성이 없으면 이들 장비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 정직성을 잃은 사람들이 정보사회를 이룬다면 그 사회는 오히려 혼란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교육의 목표를 창조성과 정직성을 기르는데 둔 것은 정보사회를 내다보고 대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사회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이같은 자질을 갖춘 인력을 길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金泳三大통령은 지난 1월 6일 가진 연두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우리가 처한 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1995년을 '세계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의 새해로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의 국정 목표를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세계화'에 돌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섯가지 과제를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첫번째는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방화시대를 여는 것이며, 세번째는 경제를 안정기반 위에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을 들었다. 네번째는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섯번째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며, 여섯번째는 세계화 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 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 공직자 스스로의 높은 도덕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종래의 획일적이며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중시하며, 창조성과 다양성, 자율성과 진취성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대통령이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세계화의 국정 목표에서 '도덕성'과 '교육개혁'을 강조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었다. 도덕성 회복이야말로 정보사회를 맞이 하는데 가장 선결돼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성 회복을 통해서 정보사회의 격변기를 슬기롭게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드높고 거센 파고를 뛰어넘어 선진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ST)